

이것은 마치 월급날이 가져다와 월급날이 오는 그런 속도

How to live SMART

Samsung GALAXY S II LTE

방콕주민 100만명 긴급대피령

50년만의 태풍수 태국 가보니 잉락 총리 "일부지역 포기"

[방콕 박민원 아시아 순회특파원] 방콕을 드나드는 도로는 거의 마비 상태다. 20일 오전 취재기사를 태운 차량은 방콕 북쪽 뻘뻘타리에 이르러 다른 차들과 함께 물에 잠겨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겨우 갓길로 차를 돌려 빠져나오니 차오프라야강 지류 주변 마을마다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다.



고, 해당 지역 주민 100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해당 지역은 방켄, 민부리, 농쪽 등 7곳으로 태국 정부는 북부에서 물이치는 물길을 이들 지역으로 돌린 뒤 바다(타이만)로 내보내려는 계획이다. 왕궁과 문화유적, 상업시설이 몰린 방콕 중심부를 사수하기 위해 동부를 희생시키는 셈이다. 잉락 전나랏 태국 총리는 이날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방콕시 전체를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가 위기 상황을 맞아 방콕 일부 지역 침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콕시는 7월 말 폭우가 쏟아진 이래 처음으로 19일 서부 7개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우선 가세도구

와 귀중품을 고지대로 옮겨놓은 뒤 정부의 긴급대피령이 떨어지면 즉시 마을을 떠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 대부분은 아직 대피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방켄에서 만난 한 주민은 "집을 버리고 어쩔 가겠느냐"며 "딱히 갈 데도 없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대학교 캠퍼스 등을 임시 대피처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재민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방콕 동부에서만 100만명 가까운 주민을 대피시켜야 하지만 대학 캠퍼스를 합쳐봐도 10만명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태국 정부가 방콕 동부를 희생하면서까지 물길을 잡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기

만하다. 아유타야, 뻘뻘타니 등 방콕 북부에서는 여전히 초당 1억 t 이상의 물이 방콕으로 흘러들어 오고 있고, 곳곳에서 소나기도 내린다. 특히 방콕을 중심으로 북부와 동부는 모두 태국의 대표적 곡창지대여서 경제적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물길에 단번에 휩쓸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농지를 초토화시키기 때문이다. 태국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홍수로 인한 피해액이 1850억바트(약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지만, 방콕 동부가 완전히 물에 잠길 경우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A5면



홍수에 잠긴 車부품공장 20일 태국 방콕 외곽의 자동차부품 공장에 수많은 부품들이 물위에 어지럽게 떠 있다. 잉락 전나랏 태국 총리는 이날 "방콕시를 모두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방콕 시내 일부 지역의 침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P/연합뉴스]

한은, 물가목표제 개편한다

3년 목표기간 삭제해 통화정책 유연성 늘리기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치를 전제로 금리정책을 펴는 인플레이션 타기팅(inflation targeting) 정책을 부분 손질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3년으로 돼 있는 명시적 물가 목표 기간을 없애 통화신용정책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드러난 물가관리 실패를 제도 개편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은 현재 3년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 기간을 정해 놓고 목표 물가(3.0±1%)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내년 중 정부와 협의해 폐지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이보다 다소 낮은 근원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을 물가관리 지표로 삼겠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20일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4년부터 3년 단위로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해 왔다"며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데다 수도 개편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은 현재 3년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 기간을 정해 놓고 목표 물가(3.0±1%)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상단을 벗어난 다음 연도에 그만큼 물가상승률을 더 낮추기 위해 경제상황에 걸맞지 않게 금리를 억지로 올리는 등 통화신용정책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해 물가수준이 4%대를 훌쩍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면서 물가관리 실패 책임론에 직면한 한은이 물가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물가안정 목표 기간을 폐지하는 한편 물가 변동성이 작은 근원인플레이션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관련기사 A8면 박문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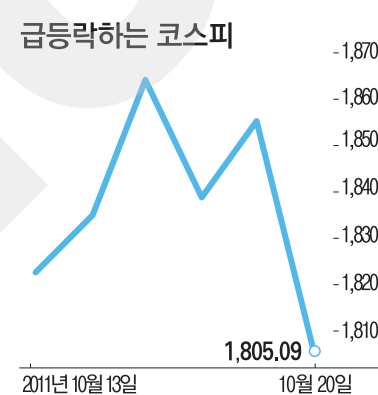
유럽기금 증액 獨·佛 막판갈등

23일 EU정상회담 비상등... 코스피 50P 급락

"유럽 경제위기와 관련한 회담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23일 로 다가온 가운데 이 회담에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그랜드플랜에 비상등이 켜졌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9일 저녁(현지시간) 예정 없이 독일을 전격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긴급회담했지만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EFSF 증액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EFSF를 은행 회해서 기금 규모를 늘리려는 입장인 반면 독일과 ECB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할 그랜드플랜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디스는 스페인 최대은행인 반코 산탄데르를 비롯한 스페인 5개 은행과 스페인 지방행정구역 신용등급을 두

터기로 하향조정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슬로베니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유럽 재정위기 진원지인 그리스는 20일로 예정된 긴급재정안정 회의 승인을 저지하기 위해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사실상 국가 마비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자 아시아 증시가 동요하며 동반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50.83포인트(2.74%) 내린 1805.09로 마감했고 일본 닛케이지수 역시 1.03% 하락했다. 상하이와 홍콩 증시도 2% 안팎 하락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값은 전날보다 13.1원 상승한 1145.00으로 마감했다. >관련기사 A10·21면 김주영·김기철 기자

나로호 실패 한·러 책임 분담

2가지 원인으로 폭발 결론... 내년 8월 3차발사

한국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 2차 발사 실패 원인에 대해 한국과 러시아 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내년 8월에 3차 발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패 원인 규명 뒤 10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8-19일 열린 2차 '한·러 공동조사단(FIG: Failure Investigation Group)' 회의에서 한·러 양국은 두 가지 복수의 원인으로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최종해 교역과학기술부 전

락기술개발관은 "지난 7월 공동조사단 1차 회의에서 5가지 실패 원인을 검토했다"며 "이번에 양측이 각각 주장하는 실패 원인 한 가지씩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 측은 실패 원인으로 1단 추진 시스템 이상 작동을 제기했고, 러시아 측은 2단 비행중단시스템(FTS) 오작동에 의한 폭발이었다고 주장했다. 1단 로켓은 러시아가 제작했고, 2단 로켓은 한국이 제작을 맡았다.

지난 2009년 1차 발사 때 궤도 진입에 실패한 나로호는 지난해 6월 10일 2차 시도에서는 발사 137.3초 만에 폭발했다. 발사체 사업을 담당한 황우연과 러시아 흐루니체프사가 실패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1년이 지나도록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 정부가 직접 원인 규명에 나서 두 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를 끌어냈다. 실패 원인을 한 가지로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국이 복수의 원인으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시보 기자

부산서 만나는 머니쇼 부산국제금융박람회

11월 17-19일 벅스코

지난 5월 4만여 명이 참석했던 서울 머니쇼 열기가 부산으로 이어진다. 부산시와 매일경제신문사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벅스코에서 격변하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짚어주고 성공 재테크 전략을 알려주는 종합 재테크 머니쇼인 '부산국제금융박람회'를 개최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투자상품을 전시하고 재무컨설팅을 실시한다. 금융

감독 당국과 공공기업들도 정책홍보관을 통해 참여하며 금융민원상담도 진행됩니다. <일시> 11월 17일(목)~19일(토) <장소> 부산 벅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 <입장료> 3000원(사전 등록 시 무료) *문의> (051)740-7516, 7519, 7384 (www.wffbusan.com)

주최: 부산광역시 매일경제신문사 주관: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금융투자협회 벅스코 후원: 금융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한국거래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꿈이 이루어지는 더 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Beyond the Horizon 온산공장확장 준공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더 큰 세상이 시작되는 곳, 에스-오일 온산 공장 확장 준공!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생산 기지를 세워 연간 20억불 수출 증대 효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가는 에스-오일의 큰 꿈! 오늘도 10년 후에도 에스-오일이 대한민국 경제에 힘이 되겠습니다

에스-오일은 총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각종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가 되는 파라디일렌과 벤젠의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